

이 보고서는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기술분석보고서

[▶ YouTube 요약 영상 보러가기](#)

그린플러스(186230)

금속

요약
기업현황
재무분석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작성기관

NICE평가정보(주)

작성자

김유진 전문연구원

- 본 보고서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후원을 받아 한국IR협의회가 기술 신용평가기관에 발주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본회와 작성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의 요약영상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며, 영상편집 일정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미 게재 상태일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에서 “한국IR협의회”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작성기관(TEL.02-2124-682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IR협회

그린플러스(186230)

국내 스마트팜 선도기업, 글로벌 진출을 통한 성장 기대

기업정보(2021/06/30 기준)

대표자	박영환
설립일자	1997년 10월 21일
상장일자	2019년 08월 07일
기업규모	중소기업
업종분류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주요제품	스마트팜/알루미늄 가공제품 등

시세정보(2021/11/22 기준)

현재가(원)	14,100
액면가(원)	500
시가총액(억 원)	1,526
발행주식수	10,820,188
52주 최고가(원)	22,400
52주 최저가(원)	11,400
외국인지분율	2.47%
주요주주	박영환

■ 11년 연속 국내 온실시공능력평가 1위의 온실 선도기업

그린플러스(이하 동사)는 알루미늄사업을 기반으로 온실의 설계부터 자재 생산, 시공까지 기술 내재화를 통한 수직계열화를 이룸으로써 경쟁력을 갖추었으며, 국내 온실시공능력 평가에서 11년 연속 1위로 선정되며 독보적인 지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다수의 시공실적을 통해 확보한 최적화 환경 조건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마트팜에 특화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 유망 선도사업인 스마트팜 산업, 정부 지원정책 활발

스마트팜산업은 정부 주도하에 대규모 투자 및 정책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는 스마트팜을 혁신성장 선도사업으로 선정하며 2022년까지 전국 혁신밸리 4개소를 조성하고, 스마트팜 기술개발에 연속성을 부여하며 기술자립 및 수출까지 연결시키기 위해 2020년부터 10년간 7,160억 원을 투입하는 등의 부양책을 펼치고 있다. 동사는 이러한 정부 지원에 힘입어 2020년에 이어 혁신 밸리 사업과 관련하여 20억 원 규모의 시공 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으며, 한국형 스마트팜을 호주로 수출하는 등의 수주실적을 이어나가고 있다.

■ 글로벌 진출 및 신제품 개발을 통한 포트폴리오 다각화

동사는 국내 최초 한국형 스마트팜을 농업 대국인 호주로 수출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이후 인도네시아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으며, 이를 마중물 삼아 동남아시아와 중동 지역으로의 진출을 준비 중이다. 이를 위해 UAE 맞춤형 온실 시스템 개발, 동남아시아 현지 재배시스템 개발 등 다수의 국책 과제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알루미늄 사업부에서는 알루미늄 소재를 활용한 물류용 이동 대차 ‘그린데이너’를 개발하였으며, 유통/물류, 제약/바이오 기업 등으로 샘플을 납품하며 상용화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요약 투자지표 (K-IFRS 연결 기준)

구분 년	매출액 (억 원)	증감 (%)	영업이익 (억 원)	이익률 (%)	순이익 (억 원)	이익률 (%)	ROE (%)	ROA (%)	부채비율 (%)	EPS (원)	BPS (원)	PER (배)	PBR (배)
2018	463.6	5.9	51	11.0	23	4.9	6.6	4.2	165.5	340	3,532	10.8	1.0
2019	488.3	5.3	51	10.4	25	5.2	8.4	3.7	93.4	314	3,815	18.0	1.5
2020	626.8	28.4	59	9.5	(21)	(3.4)	(5.5)	(2.6)	161.8	(201)	3,494	N/A	3.7

기업경쟁력

온실 시장 선도기업

- 국내 온실시공능력평가 11년 연속 1위
 - 국내 다수 시공실적 외에도 일본, 중국, 우즈베키스탄 등 해외 시공실적 보유
- 국내 최초 한국형 스마트팜을 호주로 수출

핵심경쟁력

- 국내 유일의 기술 내재화를 통한 수직계열화 달성
 - 설계, 자재 생산, 시공까지 One-stop Service 제공
- 핵심 기술 관련 특허 구축 및 국가과제 적극적 참여
 - 59건의 국내 등록 특허 외 다수의 디자인 및 해외 특허 보유
 - 중동 맞춤형 온실 시스템 개발, 한국형 온실 수출 모델 개발 등의 국책과제 수행 중

핵심기술 및 취급 품목

핵심기술

- 식물공장 시스템 기술력
 - 환경제어기술, 자동이송시스템, 무인화 등의 기술개발
- 최적화된 온실 시스템 기술력
 - Up-Down 재배장치 시스템 개발
 - 식물 근권부 냉난방 시스템 개발

적용시설



ESG 현황

Environment

항목	현황
환경 정보 공개	□
환경 경영 조직 설치	□
환경 교육 수준	□
환경 성과 평가체계 구축	□
온실가스 배출	田
에너지, 용수 사용	□
신재생 에너지	□

田 : 양호 ■ : 미흡 □ : 확인불가

Social

항목	현황
인권보호 정책 보유	□
여성/기간제 근로자 근무	田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	□
공정거래/반부패 프로그램	□
소비자 안전 관련 인증	□
정보보호 안전 관련 인증	□
사회공헌 프로그램	田

田 : 양호 ■ : 미흡 □ : 확인불가

Governance

항목	현황
주주의결권 행사 지원제도	田
중장기 배당정책 보유	□
이사회 내 사외이사 보유	田
대표·이사회 독립성	田
감사위원회 운영	■
감사 업무 교육 실시	田
지배구조 정보 공개	□

田 : 양호 ■ : 미흡 □ : 확인불가

> 당사는 온실가스 배출을 관리하고 있으나, 환경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환경 경영 조직, 환경 교육, 환경 성과 평가체계 등은 확인되지 않음.
 > 여성 근로자는 그 비중이 미흡한 수준이나, 기간제 근로자가 없으며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소비자 및 정보보호 안전 인증,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 등은 확인되지 않음.
 > 감사위원회는 운영하지 않으나, 주주의결권 행사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사외이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표 및 이사회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음.

* 본 ESG현황은 나이스평가정보㈜가 분석대상 기업으로 입수한 정보를 요약 정리한 것으로, 분석 시점 및 기업의 참여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I. 기업현황

스마트팜 산업의 수직계열화를 달성한 국내 온실 선도기업

동사는 알루미늄사업, 온실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스마트팜에 대한 독자적인 기술력을 구축하여 온실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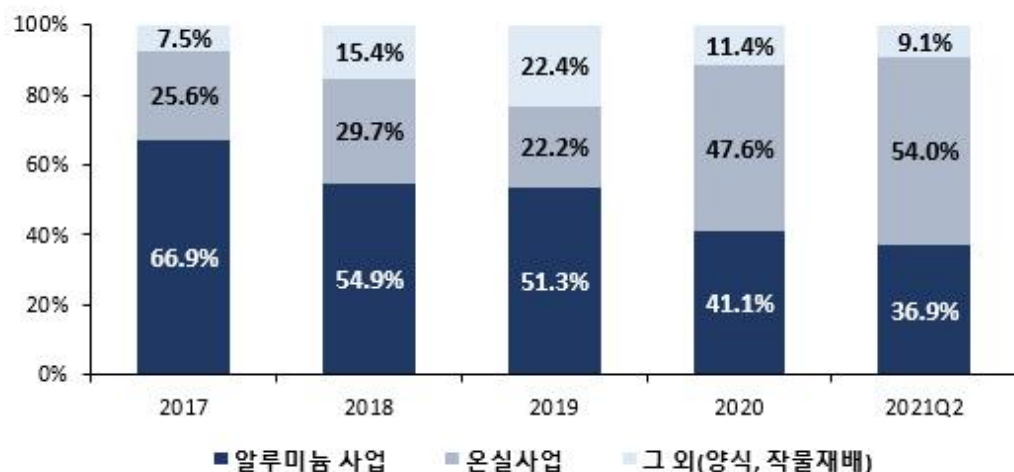
■ 개요 및 사업 현황

동사는 1997년 10월 설립되어 2019년 8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으로, 산업용 및 건축용 알루미늄사업과 온실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알루미늄 압출제품 생산을 기반으로 온실 관련 기초소재 생산을 시작하였으며, 점진적으로 사업을 확대하여 온실의 설계부터 자재 생산, 시공에 대한 기술력을 구축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11년간 국내 온실시공능력평가에서 1위로 선정되는 등 온실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스마트팜에 특화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계열회사로는 그린케이팜, 그린피시팜, 비씨에프(그린케이팜이 지분 50% 보유)가 있으며, 그린케이팜과 그린피시팜은 각각 장어 침단 양식단지과 식물공장형 대규모 온실을 운영하고 있고, 비씨에프는 딸기 재배용 침단 온실을 운영하고 있다. 동사의 최대주주는 창업주인 박영환 대표이사로, 지분 22.15%를 보유하고 있다.

동사 매출은 알루미늄사업과 온실사업, 그 외 양식, 작물재배 사업으로 구성되며, 그 외 양식, 작물재배 사업은 관계사인 그린피시팜과 그린케이팜의 영위 사업이다. 온실사업은 2017년 25.6%에서 점차 증가하여 2020년을 기점으로 알루미늄사업의 비중을 넘어섰으며, 2021년 반기 기준 54.0%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알루미늄사업은 2017년 66.9%에서 2021년 반기 기준 36.9% 비중으로 감소했다.

그림 1. 주요 사업 매출비중



*출처: 반기보고서(2021),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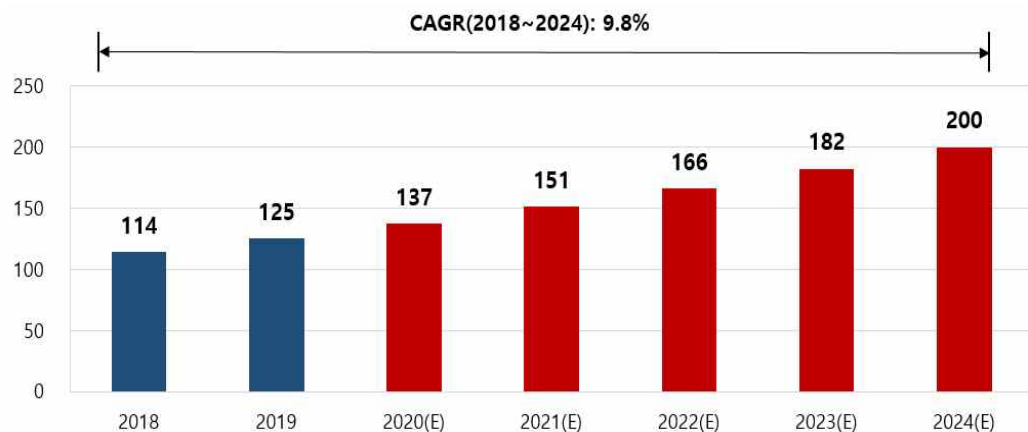
■ 스마트팜 시장 특징 및 현황

세계 인구 및 식량 수요 증가에 따라 농업 생산량 증대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IoT, AI 등 첨단 기술이 대거 도입되면서 스마트팜 시장은 가파르게 성장했다. 전 세계적으로 신성장 동력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대규모 투자 및 인프라 확충이 이루어지고 있고, 시장주기 상 도입기에 해당하여 기술개발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단계로 파악된다.

국내의 경우 아직은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들에 비해서 관련 산업 기반이 미약하나, 최근 스마트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향후 빠르게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상용화가 다소 어려운 융복합 기술의 하나로, 스마트팜으로의 전환에 있어 높은 투자 비용이 요구되고 첨단기술과 관련하여 농업종사자 인식 부족 문제가 있어 농업 전반으로의 스마트팜 확산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Markets&Markets에 따르면, 세계 스마트팜 시장은 2018년 114억 달러에서 연평균 9.8% 증가하여 2024년에 20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 기준 최종 소비자별 시장 비중은 도매용 재배 33.7%, 연구 및 교육용 재배 41.9%, 소매용 재배 16.5%, 기타 8.0%로 나타났으며, 2020년 이후 도매용 재배 분야의 수요가 가장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 세계 스마트팜 시장규모 및 전망(단위: 억 달러)



*출처: Markets&Markets 'Smart Agriculture Market'(2020),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농가당 경지면적은 1.4만㎡로 스마트팜의 주요 시장인 미국(180만㎡), 캐나다(635만㎡)에 비해 매우 작은 수준이며, 국내 스마트팜 시장규모 역시 세계 시장의 1.42%, 아시아태평양(APAC) 시장의 7.50% 수준에 그치고 있다.

2017년 기준 일정 수준의 스마트팜 시설이 갖춰진 국내 유리온실 재배 비중은 0.8%로 일본(4.5%)과 글로벌 평균(17.0%)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스마트팜을 혁신성장 선도사업으로 선정하며, 2022년까지의 전국 혁신밸리 4개소 조성 계획과 더불어 스마트팜 기술개발에 연속성을 부여하고 기술자립 및 수출까지 연결시키기 위해 2020년부터 10년간 7,160억 원을 투입하여 '스마트팜 다부처패키지 혁신기술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 보유 기술 현황

동사는 소형부터 대형 크기의 제품 제작이 가능한 알루미늄 압출 가공 기술력 외에도 온실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해 환경정보, 생육정보에 대한 운영관리 시스템까지 제공하는 스마트팜에 특화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기술연구소를 중심으로 온실 구조 및 자재 최적화, 생산량 극대화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59건의 등록 특허와 일본 및 유럽 등 해외에서 취득한 다수의 특허로 입증된다.

▶▶ 자동이송 기술을 통한 인공광 완전제어형 식물공장 기술

국내외 총 80만 평 이상의 온실 시공 실적을 통해 확보한 재배 작물별 온도, 습도, 일조량, 배양액 등 최적화된 환경조건 데이터를 기반으로 복층 구조의 설계, 자동이송 기술, 환경제어 기술, 클린룸을 이용한 무인화 시스템 등의 기술을 개발하였다.

특히, 자동이송 시스템은 정식 후 베드판을 1일 1구역씩 자동 이송하는 시스템으로, 실내에서 LED, 형광등 등의 조명 기구를 이용하여 식물을 자동으로 이송하면서 재배할 수 있다. 식물의 생장주기에 따라 재배판을 순차적으로 이동시켜서 파종된 재배판과 수확할 정도로 성장한 식물 재배판이 자동으로 이동 및 배출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력으로 다량의 생산이 가능하다.

▶▶ Up-Down 재배장치 시스템

동사는 Up-Down 시스템을 개발하여 식물의 대량 생산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는 통로 공간에도 재배대를 설치하여 기존 온실 대비 재배면적을 2배 증가시킨 것으로, 작업 동선 축소 등을 통해 효율성을 50% 이상 높였으며 온실 재배시스템 구조에 반영하여 상용화하였다.

▶▶ 효율적 열관리 및 작물 성장률 극대화

근권부 냉난방 시스템은 식물의 생장에 필요한 최적의 온도를 구현할 수 있도록 냉수와 온수를 재배 작물의 뿌리 주변에 흐르게 한 것이다.

시설 전체의 냉난방이 아닌 성장하는 뿌리가 물질을 섭취하고 저장하는 토양환경에 직접적인 냉난방을 통해 온도를 최적화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열관리가 가능하여 에너지 사용을 대폭 절감하고 식물의 성장률을 극대화시켰다.

프. 재무 분석

스마트팜 사업 호조로 매출 성장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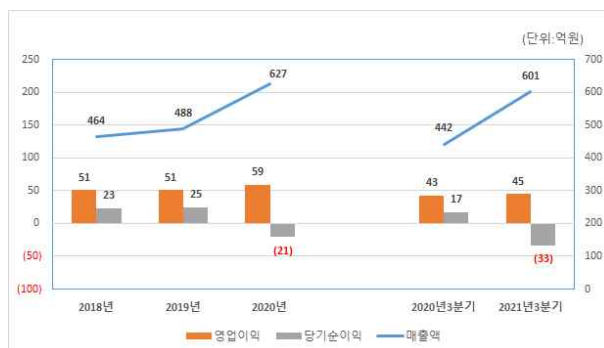
동사는 2020년 결산 기준 정부 및 지자체의 스마트팜 확산 정책의 영향으로 스마트팜 사업이 크게 성장하면서 전년 대비 28.4% 증가한 627억 원의 매출을 실현하였다.

■ 국내 온실시공능력평가 1위 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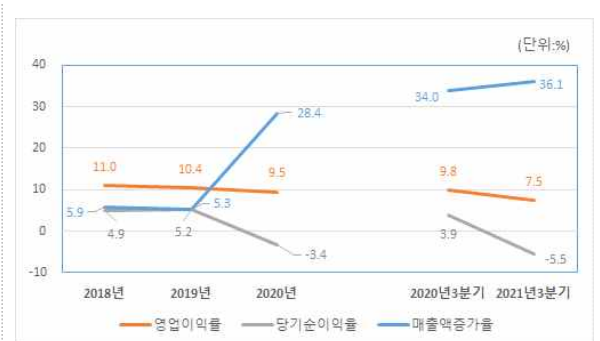
동사의 알루미늄사업은 압출-가공(절단, 프레스, MCT 등)-온실-용접의 생산 라인을 모두 구축하고 있으며, 소량 다품종 제품 생산이 가능하여 표준화된 일반 압출 제품에 비해 마진 확보가 용이하다.

스마트팜 사업은 온실의 설계, 자재제작, 시공 전반이 내재화되어 One stop service가 가능한 국내 유일의 업체로 한국농업시설협회에서 공시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 온실시공능력평가에서 1위로 선정되며 독보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림 3. 동사 연간 및 분기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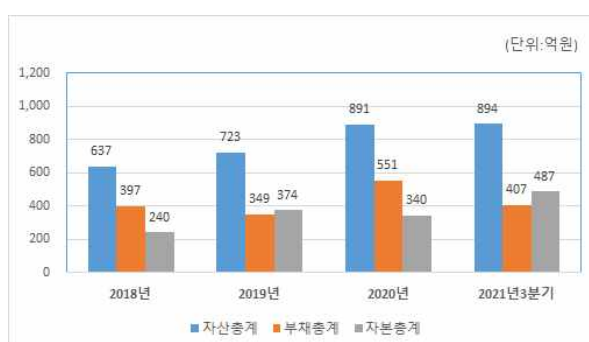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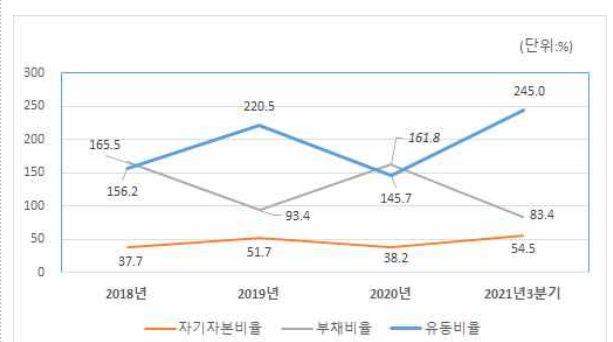
증가율/이익률 추이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0), 분기보고서(2021)

그림 4. 동사 연간 및 분기 요약 재무상태표 분석



부채총계/자본총계/자산총계 추이



유동비율/자기자본비율/부채비율 추이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0), 분기보고서(2021)

■ 해외시장 개척과 친환경 신제품 '그린테이너' 출시로 성장 기대

동사는 일본 온실업계 1위 업체인 다이센과 20년 이상의 협력 관계를 통해 40만평이 넘는 첨단 온실플랜트를 수출하였으며, 최근에는 호주, 중동지역(UAE)으로까지 확대를 모색 중이다. 또한 알루미늄 소재를 활용하여 물류창고 등에서 물류를 담고 이동할 때 사용하는 친환경 신제품 '그린테이너'를 출시하였고, 샘플을 납품하며 상용화를 준비 중으로 매출영역 확대와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성장이 기대된다.

동사는 2020년 결산 기준 알루미늄 압출/가공 사업의 점진적인 성장과 정부 및 지자체의 스마트팜 확산 정책의 영향으로 스마트팜사업이 큰 폭으로 확대되면서 전년 대비 28.4% 증가한 627억 원의 매출을 시현하였다. 2020년 매출 성장에 따른 판매관리비 부담의 완화에도 불구하고 매출원가율 상승으로 전년 대비 저하된 매출액영업이익률 9.5%를 기록하였다. 또한 주가상승으로 인해 전환사채 전환가격과 주가간의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파생상품평가손실을 인식하면서 당기순이익은 적자로 전환하여 -21억 원을 기록하였다.

■ 2021년 3분기 매출 성장 지속, 당기순손실 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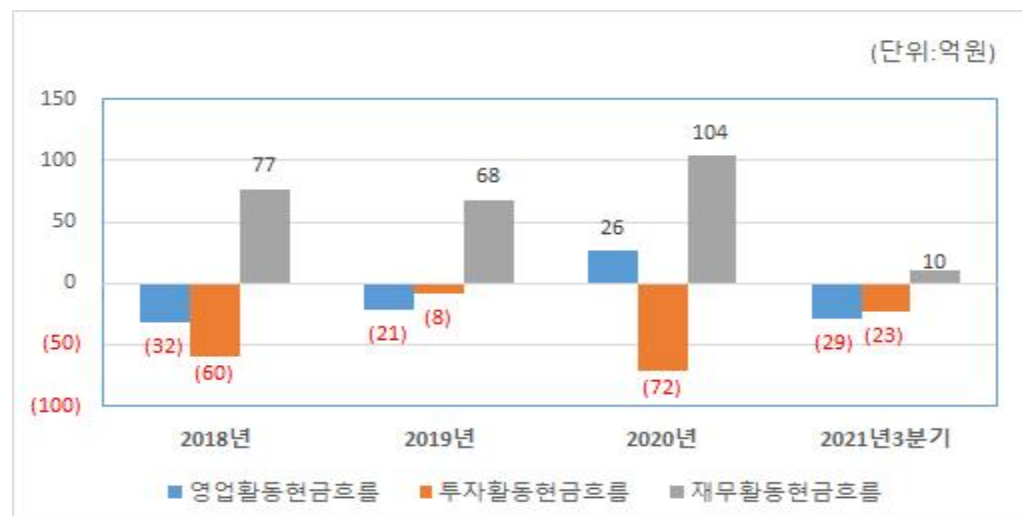
2021년 3분기 누적 매출액은 국내외 스마트팜 시공 수요 증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평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1% 증가한 601억 원을 시현하였고, 매출액영업이익률 7.5%, 매출액순이익률 -5.5%를 기록하며 당기순손실을 시현하였다.

주요 재무안정성 지표는 부채비율 83.4%, 자기자본비율 54.5%, 유동비율 245.0%를 기록하였으며 무난한 수준을 나타내었다.

■ 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동사는 2020년 당기순손실 시현에도 불구하고 파생상품평가손실, 지분법손실 등 현금유출이 없는비용등가산의 영향으로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의 상태로 전환되었고, 유입된 자금과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유형자산 취득과 대여금 지급 등 투자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였다.

그림 5. 동사 현금흐름의 변화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0) 분기보고서(2021)

Ⅲ.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환경설비 투자를 통한 경쟁력 제고 노력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을 비롯하여 지속적인 공사계약 수주가 이어지고 있으며, 신제품 개발을 통한 신규시장 개척으로 인해 향후 실적이 기대된다.

■ 주요 사업 이슈

2021년 5월, 동사는 국내 최초 한국형 스마트팜을 호주로 수출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으며, 2022년 상반기부터 12,000평 규모의 농장에 대해 본격적인 시공에 들어갈 전망이다. 2021년 9월에는 보고르농업대학과 인도네시아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동남아시아 지역으로의 수출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중동 맞춤형 온실 개발 과제를 진행 중임을 미루어 볼 때 오세아니아, 동남아시아 진출을 기반으로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으로의 진출 가능성도 높아졌다. 최근 국내수주 실적으로는 2021년 7월, 농업회사법인 팜팜과 스마트팜 온실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80억 원 규모), 2020년에 이어 ‘경남 스마트팜 혁신밸리’ 관련 20억 원 규모의 계약과 ‘청년스마트팜 신축’ 관련 47억 원 규모의 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다.

또한, 알루미늄 사업의 확장세도 확인된다. 알루미늄은 재활용이 가능한 경량화 소재로서 친환경 소재로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동사는 이러한 장점을 극대화한 물류용 이동 대차 ‘그린테이너’를 개발하였다. 기존 목재 및 플라스틱, 스틸 대비 중량을 50% 이상 감소시켜 작업의 편리성을 높였으며, 소재 특성상 녹슬지 않아 청결 유지가 용이하다. 주로 건축용 알루미늄제품을 생산해왔지만, 동사만의 가공 기술력으로 물류용 제품을 개발하여 상용화한 것이다. 현재 유통/물류, 제약/바이오 기업 등으로 개발 제품의 샘플을 납품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알루미늄사업의 매출영역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림 6. 물류용 알루미늄제품 ‘그린테이너’



개발 제품



현장 적용

*출처: 동사 홈페이지(2021),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 기술에 대한 향후 전망

정부 주도로 스마트팜 도입 및 확산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동사는 국가 연구개발 과제 및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의 계획 수립부터 참여하였으며, ‘스마트팜 다부처패키지 혁신기술 개발사업’을 통해 동남아 지역의 기후·토양 등에 적합한 고온다습형 스마트팜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중동지역 진출을 위한 맞춤형 스마트팜을 개발하고 있는 등 2021년에만 6개의 국책과제를 진행 중이다.

표 1. 최근 국가 R&D 과제수행 현황

연구개발과제	연구기간
육묘장 자동화 기반 환경제어 시스템(H/W) 개발 및 사업화 및 해외 수출 모델 발굴	2021.04~2024.12
한국형 리모델링 온실의 재배실증 및 수출 모델 개발	2021.04~2022.12
스마트온실 현지 재배 실증 및 온실 BM 수립	2021.04~2024.12
UAE 맞춤형 온실 구조 및 핵심 자재 규격화·표준화 연구	2021.04~2022.12
UAE 맞춤형 외부차광 및 증발냉각시스템 수출 기술개발	2021.04~2022.12
UAE 맞춤형 온실냉방 패키지의 물질약형 운영기술 고도화	2021.04~2022.12

*출처: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2021),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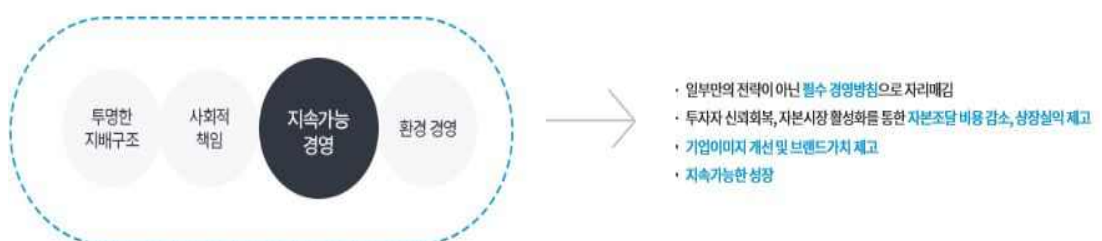
또한, 기존 네덜란드에서 수입하던 작물의 생육환경 관련 소프트웨어를 대체해서 보급하기 위하여 석/박사급 연구인력 6명을 충원하였으며, 자회사인 그린케이팜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딸기, 시서스, 오이, 생강 등의 소프트웨어 출시를 위해 연구개발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 ESG 활동 현황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한다. ESG 평가는 기업에는 지속 가능 경영의 동기를 유발하고 투자자에게는 사회적 책임 투자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국내 ESG 평가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서스틴베스트, 대신경제연구소 등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2021)에 따르면, 현재 평가기관별 ESG 지표의 세부항목이 달라 같은 기업에 대해 등급 편차가 존재하여 평가대상인 기업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바, 국내 상황에 적합한 K-ESG 지표를 마련하여 표준화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다.

그림 7. ESG



*출처: 한국기업지배구조원 홈페이지(2021)



동사는 ESG 평가등급 이력이 부재하여 공개 자료 및 질문지를 통해 ESG 항목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확인했다.

환경 관련 규제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나,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환경정보는 파악되지 않으며, 환경부문에 해당하는 ISO 14001:2004, 녹색기술 인증 등의 유효 인증은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향후 환경 인증 확보와 더불어 환경경영 조직을 설치하여 교육을 수행하고, 환경성과 평가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전략 수립을 통해 환경책임경영에 관한 활동이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2021년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는 없으며, 여성 근로자는 16명(전체 13.4%)으로 총 119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사회 책임경영에 관한 부문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 여성/기간제 근로자 근무 현황

사업 부문	성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합계
제조업	남	103	-	103
	여	16	-	16
합계		119	-	119

*출처: 반기보고서(2021),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사회공헌 관련하여, 동사는 양압식 이동 선별진료소를 개발하여 2020년 4월 충청남도에 기증한 것으로 파악된다.

스마트팜에 적용되는 바이러스 및 병충해 차단기술을 활용한 것으로, 양압기를 통해 내부 압력이 외부보다 높게 유지되어 바깥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며, 양압기에는 바이러스를 차단할 수 있는 울파필터가 장착돼 의료진이 방호복을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다. 해당 진료소는 KTX 천안아산역에 설치되었으며, COVID-19 선별 검사에 활용되고 있다.

지배구조 부문은 정관에 의해 주주의 의결권을 1주마다 1개로 정하고 있으며, 주주의결권 행사 지원제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지배구조 정보는 계열회사 지분 표를 별도 공시하고 있지 않아 확인되지 않는다.

이사회 구성은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총 4명의 이사 중 1명의 사외이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사 선임 시 정보 공개 외 선출에 대한 독립성 기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않으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감사 1명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관심이 제고되고 투자자의 관점에서 투자 적합 기준이 아니라 모든 구성요소가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러한 노력의 측정지표로서 ESG 기준의 충족이 필요하다.



■ 증권사 투자의견

작성기관	투자의견	목표주가	작성일
IBK 투자증권	Not Rated	-	2021-1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3Q21 연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전년대비 개선될 전망자회사 그린피시팜, 부진했던 3Q20 영업이익에 대한 기저효과 기대			

■ 시장정보(주가 및 거래량)



*출처: Kisvalue(2021.11)